

127회 여름대공연 무대팀 인수인계서

무대팀장 64기 박인수

목차

0.

1. 무대 전체 과정 및 일정

2. 무대 준비

2-1. 제반 조사

2-2. 극장 답사

3. 무대 제작

3-1. 철 프레임 조립

3-2. 무대 장비(전동톱, 전동드릴, 타카)

3-3. 가벽

3-4. 페인트 작업

4. 대도구 및 소도구

4-1. 큐빅

4-2. 간판

4-3. 커튼(천)

5. 용달

6. 공연 기간

6-1. 무대 설치

6-2. 무대 상주 / 오퍼레이션

6-3. 무대 철거

7. 학교 비상 연락망

8. 마무리

0.

들어가는 말

127회 여름 대공연 <뽕> 무대팀장을 맡았던 64기 박인수입니다. 이번 127회 여름대공연은 7/1(월)을 시작으로 7/29(목)~9/1(일)에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여름대공연의 무대에서는 새롭게 시도해보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대도구도 아닌 큐빅만을 사용하였고, 가벽과 더불어 철제 프레임을 조립하여 커튼을 달아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유의하셔서 인수인계서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팀 인원은 총 12명으로 다른 팀들에 비해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팀원의 수가 아닌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율입니다. 팀원들의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대 팀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팀원 모두가 모든 주치의 회의와 작업에 참여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자의 일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고 많지는 않더라도 열심히 참여해주는 팀원을 믿고 또 같이 일하는 키스텝들을 믿으며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무대팀은 회의도 하고 제작도 해야 하기에 전체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항상 미리 계획하고, 절대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실행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물품 조달과 일손일 것입니다. 물품은 제작일 전에 배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배송일을 확인하여 주문해주시고 일손은 무대 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인원을 모으거나 정말 불가피하다면 키스텝과 같이 주변에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무대 디자인의 시작과 끝은 연출에게 있습니다.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디자인을 완성하였다면 연출님께 고민하지 말고 컨펌을 요청하세요. 수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디자인이 잘못되거나 제작이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연출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로 이 인수인계서만이 아닌 전 무대팀장들의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참고하셔서 전체 공연일정에 맞춰 회의와 제작 일정을 미리 짜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무대 전체 과정 및 일정

이번 127회 여름 대공연은 7월 1일에 시작하여 총 9주차로 진행되었으며 3주차에 휴가 한 번, 마지막 9주차에는 무대 설치와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대팀의 고정 회의일은 수요일이며, 율전과 명륜 동방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차 : 자기소개 및 친해지기 / 무대팀 설명 및 일정 공유
- 2주차 : 레퍼런스 공유 / 대본 분석
- 3주차 : 휴가
- 4주차 : 아이디어 스케치 / 디자인 회의 / 디자인 초고 완성
- 5주차 : 대도구(큐빅) 사전 제작
- 6주차 : 가벽 1차 제작 / 빵집 간판 과 커튼(천) 디자인 회의
- 7주차 : 간판 제작 / 대도구(큐빅) 보수
- 8주차 : 가벽 2차 제작 / 간판 제작
- 9주차 : 무대 설치 및 상주

여름대공연 무대팀 전체 일정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주차	30	1	2	3	4	5	6
		공연 준비 시작		무대팀 회의			
2주차	7	8	9	10	11	12	13
3주차	14	15	16	17	18	19	20
4주차	21	22	23	24	25	26	27
			프로필 촬영	프로필 촬영		MT	MT
5주차	28	29	30	31	1	2	3
7월							
6주차	4	5	6	7	8	9	10
8월							
7주차	11	12	13	14	15	16	17
8주차	18	19	20	21	22	23	24
						시연회	철야
9주차	25	26	27	28	29	30	31
		극장 대관일	극장 대관일	최종 리허설	공연	공연	공연
10주차	1	2	3	4	5	6	7
	공연						

127회 여름대공연 준비는 총 9주차로 진행되었으며 3주차에는 무대팀 자체 휴가를 보내 실질적으로 8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대 팀은 가능한 한 많은 팀원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한 팀입니다. 회의 단계부터 실질적인 제작 과정까지 팀장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간단한 자기소개와 아이스브레이킹 그리고 작업을 마친 후 팀 내 회식과 뒷풀이는 무대팀의 단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급한 제작 일정으로 인해 많은 회의 주간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정해진 디자인과 그로 인한 변동 사항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가벽 제작이나 철제 프레임 등. 이러한 변동 사항은 결석한 팀원을 포함하여 모든 무대 팀원이 알 수 있도록 회의 내용을 꼭 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의와 제작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2. 무대 준비

무대 팀장은 공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조오금 있습니다. 바로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균국회는 명륜과 동방 학생회실에 각각 동아리방이 위치해있습니다. 각 동아리방에는 함께 가지고 있는 물품들도 있지만, 한쪽에는 없는 물품도 존재합니다. 이를 유의하셔서 작업을 할 시 어느 곳에 필요한 물품이 위치 해 있으며 언제 사용할지 혹은 사용할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극장 답사입니다. 무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무대가 어느곳인지, 얼마나 크고작은지 알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극장 대관 시 받을 수 있는 극장의 평면도가 있다면 이를 기획팀장님 혹은 회장님께 요청드리거나 평면도가 없는 장소(학교 소극장)라면 직접 줄자를 들고가서 무대의 좌우 길이와 폭 넓이, 높이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2-1. 제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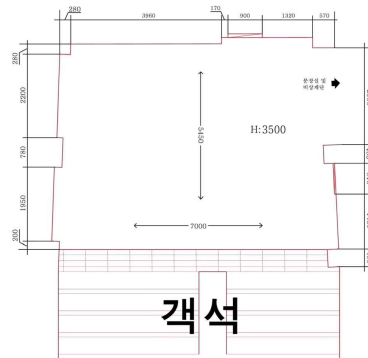
무대 팀장은 울전과 명륜 동방에 무엇이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가벽과 각목, 합판의 개수를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동방에 어떤 대도구와 소품들이 있고 무엇을 새로 구해야 하는지 미리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저번 워크샵 때 울전에서 새로 제작하였던 가벽을 사용하였으며 명륜에서는 남는 합판으로 큐빅을 제작하였습니다.

제반조사 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1. 사용 가능한 가벽의 개수
2. 사용 가능한 합판의 개수
3. 사용 가능한 지지대의 개수 (127회 워크샵, 이재욱 조명팀장님의 지지대)
4. 사용 가능한 못의 개수(중못, 대못, 피스 등) , 사용 가능한 케이블 타이의 개수
5. 각 동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종류(드릴, 전동톱, 망치, 타카 등)
6. 대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구들(소파, 책상, 큐빅 등)
7. 보유한 페인트의 색상 및 양/사용 가능 여부

정도가 있습니다.

2-2. 극장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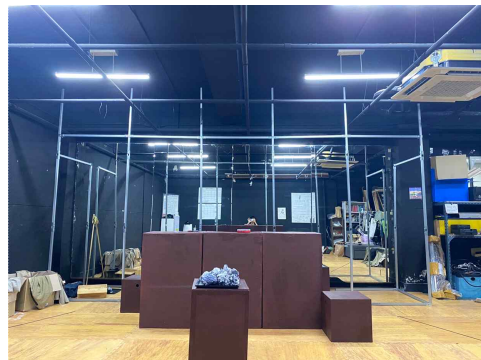


R&J 씨어터 무대 규격

이번에 대관한 소극장 R&J 씨어터는 명륜 마로니에 공원 뒤횥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의 크지 않은 규모의 소극장이었습니다. 가로 7m x 세로 5.5m x 높이 3.5m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소극장 내에서 망치질과 같은 큰 작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인지한 후에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작

3-1. 철제 프레임 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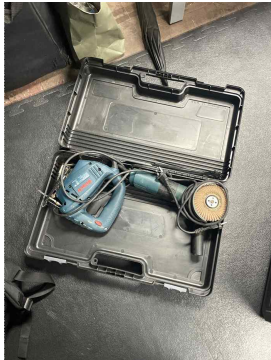


<보유한 프레임 개수>

- 1m 막대 - 40개
- 1자 조립식 앵글 - 18개
- ㄴ자 조립식 앵글 - 8개
- 육각 렌치 - 3개

막대와 막대 사이에 앵글을 끼우고 육각볼트를 렌치로 돌려 고정시킵니다. 프레임의 안정성을 위해 막대와 막대 사이를 추가로 연결하거나 뒤편으로 막대를 추가시키는 등 여러 방법을 고안해보았습니다.

3-2. 무대 장비(전동톱, 전동드릴)



<전동톱>

이번 공연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전동 톱. 각목이나 합판을 길이에 맞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꺼도 2초간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동드릴>

합판과 각목에 못을 박는 대신 전동드릴로 나사를 박아넣을 수 있습니다. 못과는 달리 쉽게 뺄 수 있기 때문에 가벽 지지대에 자주 이용됩니다.

3-3. 가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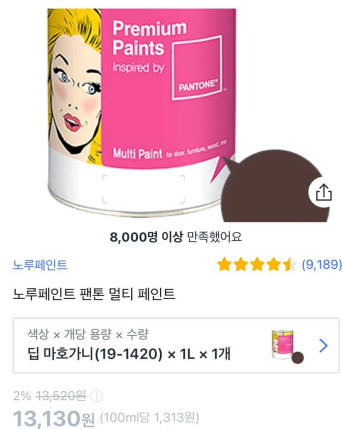
1. 잘라 놓은 각목으로 틀 (건카타와 대못 이용)
2. 합판과 각목을 고정 (소못을 각 각목 위마다 고정)
3. 지지대 만들기 (이재욱형님의 3D 출력)
4. 지지대와 가벽을 결합 (미리 뚫어둔 구멍에 드릴작업)

대략적으로 가벽을 짜는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2명에서 가벽을 하나 짜는(2번까지의 단계) 시간은 각목을 길이에 맞게 미리 잘라 놓았다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가벽을 짜는 동안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 없으니 일 잘하는 사람 3,4명 정도만 불러서 1번과 2번의 과정을 배분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지대 제작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리 잘라 놓은 각목을 3D 프린터로 제작한 부품에 나 있는 구멍에 맞게 구멍을 뚫고 각목과 부품을 서로 고정시키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으로 볼트를 박고 반대편에 너트를 돌리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개의 가벽 당 지지대 2개가 필요했기에 총 20개의 지지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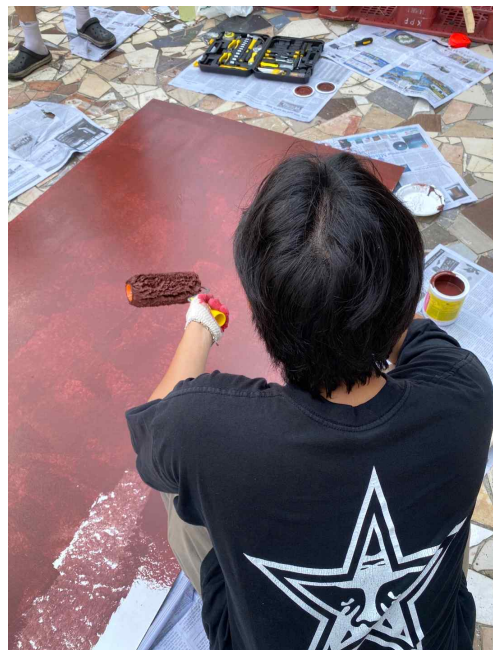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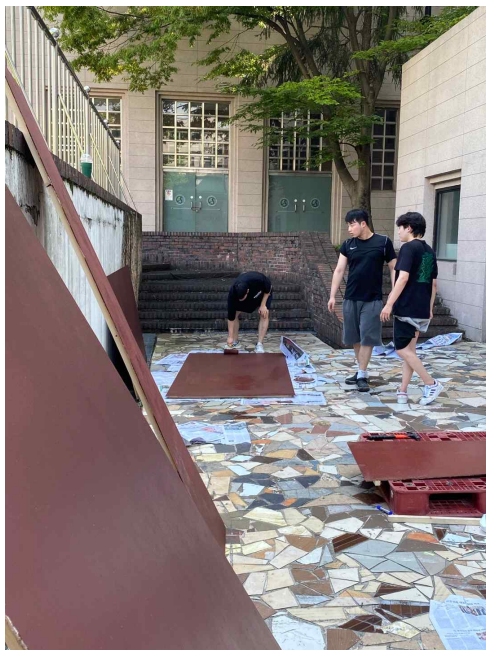
하지만 지지대 사용으로 인해 무대 설치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전동드릴로 나사를 고정시키는 방식이기에 가벽과 지지대의 나사 고정만 푼다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가벽을 철거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벽과 지지대를 못으로 고정시키고 추가적으로 철사와 케이블타이를 감아 고정시키는 방식이었기에 각목에서 못을 다시 빼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3-4. 페인트 작업



이번 공연에서 페인트는 위 사진의 노루페인트 딥 마호가니 한 종류만을 선택해 사용하였습니다. 페인트는 생각보다 가격이 나가서 한 번에 사실 때 사용할 색깔과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페인트는 작업을 할 때마다 소분할 용기와 붓 혹은 롤러가 사용되기에 되도록 한 번 작업할 때에 모든 페인트 작업을 완료해주시는 것이 예산적으로 좋으며 필요한 페인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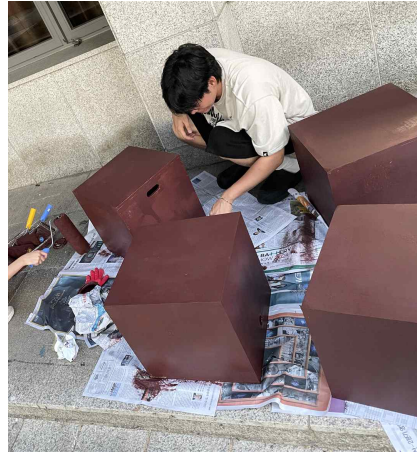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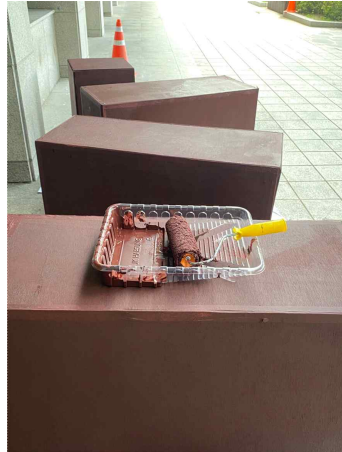
3-4-1. 가벽 페인트 작업



이번 공연에서 가벽 페인트 작업은 울전 학생회관 지하 창고 바깥에서 진행하였으며 모든 가벽을 칠하는 시간은 대략 4인 기준 3시간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1L의 페인트로 2개의 가벽을 칠할 수 있으며 페인트의 종류에 따라 가벽을 한 번씩 더 덧칠해야 하기에 넉넉하게 사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야간에 작업을 할 시에는 울전 학지팀이나 종합상황실에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페인트가 바닥에 묻지 않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 후 페인트를 칠해주셔야 뒤처리가 깔끔합니다. 남은 페인트는 굳지 않게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보관해주세요.

3-4-2. 큐빅 페인트 작업



큐빅은 명륜 학생회관 1층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 대도구 및 소도구

이번 여름대공연에서 대도구는 의자큐빅 5개, 작은 테이블 큐빅 1개, 큰 테이블 큐빅 3개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소도구로는 빵집 간판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4-1. 큐빅

- 의자 큐빅은 사람이 앉을 정도의 안정성이 있어야 하기에 제작을 하는 대신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자 큐빅: 400x400x400 (가로x세로x높이)

- 테이블 큐빅은 모두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400x400x650 / 큰 테이블: 400x650x1000



전동톱을 이용하여 보유한 합판을 크기에 맞게 절단한 이후 그림과 같이 각목을 긴 모서리 부분마다 덧대어 못으로 고정시킨 후 합판을 덮어 완성하였습니다. 절단면이 거칠기 때문에 사포로 한번 마감을 시켜준 이후 각 모서리를 마스킹테이프로 한 번 더 마감하였습니다.

4-2. 간판



이번 공연에서의 유일한 소도구인 간판은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은 왼쪽 사진과 같이 결정되었지만,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른쪽과 같은 디자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자가 올려져 있는 판은 보유한 합판을 잘라 만들었으며 규격은 1100x330입니다. 글자는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기존의 플라스틱 색깔인 하얀색에서 미색 스프레이를 뿌려 칠하였습니다. 테두리는 우드 막대로 문구점에서 길이 1m당 1000원 안팎으로 구입하였습니다.

4-3. 커튼(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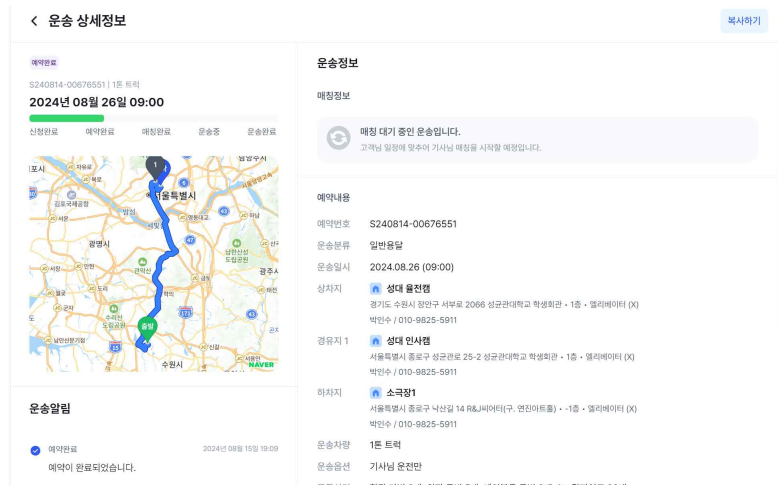
이번 공연에서는 가벽을 사용하는 동시에 프레임을 사용하여 천으로 중앙 뒷배경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천은 동대문 원단 시장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평하게 퍼진 천이 아닌 커튼과 같은 주름을 원하였기에 필요한 원단의 길이는 펼쳐진 원단(기준 원단)의 1.5배 정도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필요한 길이는 5m였기에 저희는 10m를 주문하였으며 재질과 색깔을 모두 연출님께 컨펌받아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천의 종류와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구입한 천의 가격은 한 마당 10,800원씩 총 108,000이 나왔습니다.)

5. 용달

극장으로 대도구와 가벽, 무대팀 이외의 조명, 의소분 물품 등을 용달을 이용해 운반합니다. 용달은 극장 대관 첫날 아침 일찍 불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때, 동방에서 용달에 짐을 상차할 인원과, 극장에서 용달을 받아 하차할 인원을 미리 나눠 두어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공연의 경우 용달이 오전 동방에서 출발하여 명륜 동방을 경유하고 소극장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팀을 총 3팀으로 나누어 각 장소에 배치하고 용달을 끝낸 이후 소극장에 모여 무대 설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철거의 경우 이번 여름대공연의 마지막 공연은 17시에 시작하였습니다. 러닝타임 1시간 10분을 마치고 무대 인사를 비롯한 사진 촬영 시간을 계산하여 19시 10분에 용달을 불렀습니다. 철거의 경우 주말 밤 늦은 시간일 확률이 높으니, 학교 경비실에 미리 연락해 학생회관 이용에 대해 양해와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격은 울전에서 명륜으로 용달을 부를 경우 10만원 내외, 명륜에서 소극장으로 용달을 부를 경우 5만원 내외가 적당합니다.



<용달 업체>

빛과소금용달: 010-4843-0939

공유화물: <https://www.1800-9924.com/index>

샌디:

<https://sensity.ai/?NaPm=ct%3Dltfwfveq%7Cci%3Dcheckout%7Ctr%3Dds%7Ctr%3Dnull%7Chk%3Dedcd133fd9a486e351562c754cd3aa958938cc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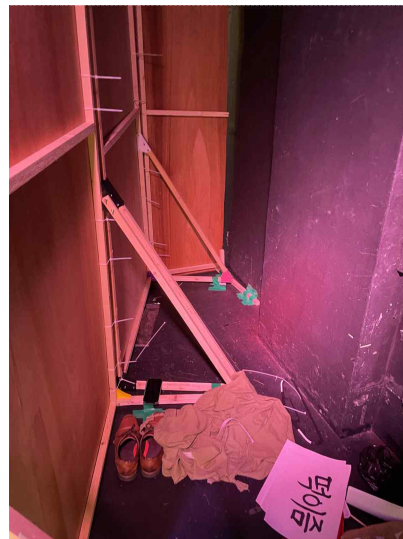
카카오 T 퀵.배송: <https://biz-quick.kakaomobility.com/>

개인적으로는 빛과 소금 용달을 1번으로 추천드리고 다음으로는 세 업체를 동시에 비교한 후에 가격이 싸거나 기사님이 빠른 시간에 배치되는 곳으로 예약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공연 기간

무대팀은 공연기간에 무대 설치와 철거 이외에는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무대 설치가 완벽히 이루어진 이후에는 가끔씩 무대를 둘러보는 것 이외에는 공연을 편히 즐기고 관람하시면 됩니다.

6-1. 무대 설치



무대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벽 설치 : 미리 생각해주었던 위치를 마스킹테이프로 표시 후 가벽 세우기. 가벽과 지지대를 나사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주기. -> 가벽과 가벽 사이를 케이블 타이로 감아 가벽 사이에 틈이 없도록 만들기. -> 지지대와 바닥을 청테이프로 한번 더 고정. + 가벽 뒤로 벽이 있다면 가벽과 벽 사이를 케이블 타이로 연결하여 고정시켜주면 더욱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2. 대도구 배치 : 캐스트의 동선을 고려하여 연출님과 상의 후 대도구 배치를 조정. 이번 공연에서의 대도구는 큐빅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각 장마다 바뀌는 큐빅 배치에 맞추어 바닥에 야광테이프를 붙여 놓았습니다.
3. 대도구의 배치 무대 뒤쪽 통로와 가벽 지지대에 야광테이프 붙이기

6-2. 무대 상주 / 오퍼레이션

설치 이후 공연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무대팀이 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공연 시작 전후로 하자가 생긴 대도구와 가벽 점검 및 보수, 무대 청소 정도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밖에서 대기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주 인원으로는 팀장을 포함하여 2,3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연 기간 내에 무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대 팀장은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상주 콜타임의 경우 2시 공연일 경우 11시, 5시 공연일 경우 2시, 7시 공연일 경우 4시에 팀원들을 불러 상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무대가 상주만이 아닌 오퍼레이션도 맡게 되었습니다. 무대 오퍼가 맡은 일은 징과 장 사이의 암전 때마다 커튼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각 장마다 큐빅의 배치가 바뀌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큐빅은 무대 뒤편으로 들어오고 또 사용될 큐빅은 무대 뒤편에서 나가기 때문에 무대 오퍼(좌우 2명)가 커튼을 올려주어 큐빅이 드나들기 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커튼을 동시에 올려야 하기에 한 두 번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였으며 각 공연마다 상주 인원 중 2명을 차출하여 무대 오퍼를 진행하였습니다.

6-3. 무대 철거

용달을 부른 시간에 맞추어 용달 기사님이 오시기 전에 가벽과 대도구를 비롯한 모든 물품을 지상으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철거가 시작되기 전 미리 팀원들에게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분주할 시점이 바로 공연이 끝난 이후의 무대 철거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올리고 팀원들에게 숙지시켜놓아야 철거가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동방에서도 용달로 실어오는 물품을 받을 사람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대를 철거하고 용달에 상차할 조와 동방에서 물품을 받고 동방 안으로 들여보낼 조를 나누어 철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7. 학교 비상 연락망

- 울전 캠퍼스 종합 상황실 (031-290-5119)
- 울전 캠퍼스 학생지원팀 (031-290-5036)
- 명륜 캠퍼스 학생지원팀 (02-760-1119)

8. 마무리

공연에서 무대는 공연의 시작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스트의 연기, 관객의 몰입 역시 무대의 퀄리티와 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대는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하기에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한 팀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드러나는 팀인 만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대를 완성해 나간다면 아름다운 공연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을 읽으시는 무대 팀장님, 겁먹지 마시고 꼭 멘탈 붙잡으세요. 파이팅입니다!